

2007. 11. 16 (金)

第165回 東草市議會(臨時會)

市政質問 答辯書

1.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김강수 의원)
2.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김강수 의원)

東 草 市

市政質問答辯書

질문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보 건 소
제 목	○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 변 자	市 長
< 질문요지 > ○ 市の 인사적체 심각, 부단체장 자체 미승진, 보건소장·시설사무관 도에서 전입, 소규모 동 통폐합 예정 등 적체요인 등에 대한 구체 실태와 市 차원의 대비사항에 대하여 1. 민선 출범이후 도내 시군중 부단체장 자체 승진한 시군과 향후 부단체장 자체승진 가능시기와 필요한 여건, 현재까지 자체승진 시키지 못한 사유 ? 2. 신임 보건소장 도에서 전입 경위와 인사교류를 통한 협의사항은? 3. 관행적인 시설사무관의 도에서 전입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전입 배제를 통한 자체승진 등의 향후 방침은 ? 4. 정부 추진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과 만약 불가피하다면 향후 인사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			

- 평소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올바른 民意를 바르게 전달해 주시며, 늘 시정 운영의 正道를 조언해 주시는
< 김 강 수 의원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과 우리 직원들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5년 민선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지방화는 이제 십수년의
세월을 지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상의 덕목으로 뿌리
내리게 되었으며, 시민과 함께 가꾸는 시정이 지역발전의 초석
임을 깨달은 소중한 과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부수적인 요인들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제 지방화는 국내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넘어 세계의 중심도시
들과의 경쟁력을 갖추 나가야만 하는 것이 시정발전의 百年大計를
생각하는 큰 밑그림이여야 하며,
- 이를 위해 매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진취적인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며
이를 다지는 初心으로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민선출범이후 도내 시군 대다수는 부단체장을 자체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에도 6개 군이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있어서 부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원활한 행정을 다지며 외적으로 폭넓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책으로서 강원도와 중앙부처, 국책기관 등의 다양한
인맥과 역량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부단체장의 임용은 단순히 시 직원의 임용차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정발전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속초시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을 임용하여
시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결정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강원도 및 중앙부처 연결창구 역할과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문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임용시에
속초시가 처한 경제적 현실, 속초시 공무원의 현황, 강원도와의
협력관계 등 임용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부시장의 자체승진 문제도 임용시의 임용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장철규 부시장 임용의 경우에도, 속초시가 처한 임용상황을 고려한 임용 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초시가 경제적·관광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속에서 속초에 연고가 있어 고향발전에 깊은 애정과 정열을 바쳐 중앙과 강원도를 연결할 수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부단체장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장철규 부시장은 고향이 속초이고 우리시에 근무하다 '84년 인사교류를 통해 강원도에 전입한 후 임용당시에는 도정의 경제부서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일방적인 시 전입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통해 능력 있는 속초시 공무원을 강원도에 전입시킴으로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임용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이 유능한 속초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함양시키면서 부단체장으로 임용하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 2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주요 역할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초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총 이용객 37,738명중 일반진료 이용자가 18,750명(치과, 한방, 물리치료등 제외)으로 50%에 육박하여 일반서민들을 위한 진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세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의사를 대상으로 계약직을 공모하게 되었으나,
- 공무원규정상 낮은 연봉과 근무지가 지방인 점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응시자가 없어, 이러한 조건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일반 의사 자격을 갖추고 관리의사와 보건행정의 경륜이 있는 현 보건소장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소에는 현재, 공중보건의 4명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나 진료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과 4월에는 3명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게 되면 단시일내 보충이 어려워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등 그 고충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료와 보건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등용이 불가피 하였으며, 현 보건소장은 도에서 의무방역·정신보건·의료사업 팀장을 역임하여 도와 정부의 보건행정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내 최초로 공수병 관리지침 등의 저서와 사회보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재이기도 합니다.
-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 3 강원도 시설사무관의 전임과 관련하여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는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 시·도간의 인사교류는 시정과 도정의 가교적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청내 지역인사가 적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인맥 관리와 도정 반영 등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물론, 자체 승진에 다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에서도 인재 육성차원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에게 교류의 문을 활짝 열고 적극 매진하는 등으로 이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4 지난 11.13일, 의원간담회시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본방향은 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필두로 사회단체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市의 기본입장으로
- 시민들의 民意를 최우선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오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강수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
말씀하신 대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적체 해소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 이를 위해서 시정은 이미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100대 중점추진 과제를 구심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곧 시세확충으로 이어져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보 건 소
제 목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中	답 변 자	보 건 소 장
《 질문요지 》 신임 보건소장께서는 속초시에 근무하면서 직원간의 화합과 보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포부를 간략 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수근 입니다. ○ 먼저, 속초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우리 시 보건행정 운영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속초시 보건소장으로서 직원간의 화합과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직원간의 화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개개인이 서로 잘 어울려 지내고 일에 있어서 협조 및 협력이 잘 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화합은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관계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서로가 정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일에 의해서 쌓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충분한 의사소통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는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우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입니다. 저와 직원들과의 화합이 직원들간 서로의 화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의 발전이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의료의 질 제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행정 분야의 종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주민의 건강수준에 위협을 주는 음주, 흡연, 운동부족, 영양 과잉 및 결핍, 비만 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나아가겠습니다.
- 지역의료의 질 제고를 위하여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내 의료자원이 서비스를 연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 전염병예방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호발시기에 앞서서 예방방법과 위생수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보건소장으로서 직원간의 화합과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질문의원	김강수 의원	소관부서	도 시 과
제 목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답 변 자	시 장
《 질문요지 》 ○ 속초시 모공직자 개입의혹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점 감춤없이 한건 한건 소상하게 밝혀 주기바람. ○ “주민들에게 이 토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인 주민의혹내용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이 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여부 ? ○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보상금액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소야지구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토지공사와 보상이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차기 시장이 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속초시 장기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			
《 답변내용 》 ○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우리시 현안과제의 하나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속초시 모공직자 등 개입의혹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공직자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는 소야별대책위에서			

고발한 사안으로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가 소상히 밝혀지리라 판단됩니다.

- 본 공직자와 가족의 토지 위치는 붙임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 철도부지 서쪽은 일반철도(15m), 완충녹지(20m×2개소)로 총폭원이 55m가 계획되어 있어 만약 구역에 포함시킬 경우 생활권 양분됨으로서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또한 일반철도를 구역에 포함시킬 경우 동해북부선 철도노선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로 철도공사와의 협의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우리시와 토지공사의 입장입니다.
 - 동광사 인근은 도시개발사업시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므로 구역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구역경계를 동광사 인근의 도로·구거지역을 경계로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 재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 질문내용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의원님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지난 10.22. 시장 집무실에서 주민대책위와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005. 9. 14 토지공사에서 속초시에 지역종합개발 협약제안 도면,
 - 2006. 9. 27 2015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도면,
 - 2006.10.23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면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 주민과 시가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하며 토지보상가 상향방안을 대화중 주민대책위에서 토지보상가가 높게 책정되면 토지공사에서 적자가 나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냐며 반문함에 따라,

- 공공기관에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인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인상여부, 공시지가 결정절차,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보상금액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의 사실여부는

- 본 소야지구는 오랜기간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시에서는 보상이 상향대책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3회 상향조정 후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소야지구 토지의 대부분은 녹지지역(전·답)으로서, 현재에는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고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 향후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기대, 개발계획 확정시 주거나 상업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감안할 때 개별 공시지가 또는 거래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선정조사 및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조사·평가하며 그 절차는

- 표준지 선정조사 및 지역분석
- 전국 가격균형 협의
- 표준지 가격평가
- 표준지 가격열람 및 해당 자치단체(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 건설교통부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최종적인 심의·결정을 거쳐
- 매년 2.28, 건설교통부 관보에 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속초시에서 매년 5.31 결정·공시

— 소야지구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인근토지의 지가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 개발지역외의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일반 녹지지역(전, 답)의 거래 가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의 자료제공이나 의견개진을 통해 지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 개발지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기대치와 개발계획 확정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적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토지와 관련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다소 높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 본 지역은 대부분 농지이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세율(0.7/1,000)이 낮게 적용되고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세가 미부과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소폭은 인상이 불가피 하므로 토지소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협의 전까지 일정기간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토지공사와 보상이 인상에 대하여 협의 사실여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시행 시기를 뒤로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소야지구 토지소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되고 있는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5년뒤 시작하자는 등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으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속초시는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 도시의 성장·발전,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주거·관광·물류·유통산업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64%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 개발가능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속초미래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또한 본 소야지구는 도심지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각종 개발의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기에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 속초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계획 및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고 난개발로 인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도심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속초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 특히 정부에서는 속초시가 인구의 감소, 경기침체 등 낙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약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포기할 경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여 속초개발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므로 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기회에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지역 퇴직자·은퇴자 휴양 주거단지, 체류형 관광 휴양 레저단지, 속초항과 연계한 물류유통단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공해 산업용지 조성 등 미래 도시개발 소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속초시에서는 사업의 착수시기를 가능한 조정하여 토지 보상가를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